

Are You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3. 7. 19 (수)

meritz Strategy Daily

전략 공감 2.0

Strategy Idea

중국 부동산 회복 점검: 도돌이표

칼럼의 재해석

틱톡, 동남아시아 이어 미국에서도 이커머스 사업 확대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 글로벌 투자전략-신흥국

Analyst 최설화

02. 6454-4883

xuehua.cui@meritz.co.kr

중국 부동산 회복 점검: 도돌이표

- ✓ 상반기 중국 부동산 회복 현황: 1Q 반짝 호조, 2Q부터 예상보다 더 부진
- ✓ 하반기 부동산 경기: 부진한 흐름 지속되며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 예상
- ✓ 리스크: 정책 지원에 시스템 리스크 제한적이나 일부 기업 부도 위험 상승 = 중국증시 부담요인

상반기 중국 부동산 회복 현황: 2Q부터 예상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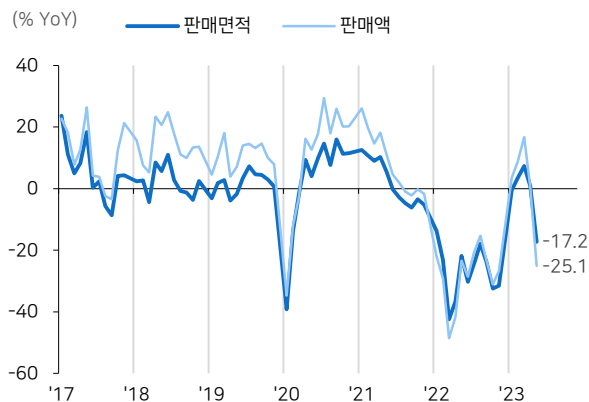
중국 2Q GDP 예상 하회,
부동산경기 부진이 원인 중 하나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인 7.1%를 하회했다. 성장률 부진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전략공감에서는 중국 부동산 경기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시장에 대해 전망 해보았다.

상반기 부동산 경기:
도돌이표, 2Q 예상보다 더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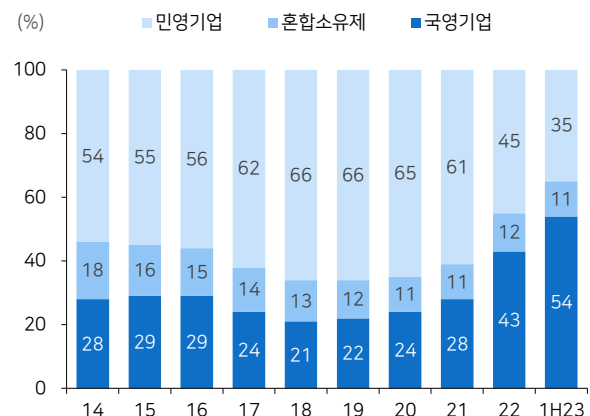
상반기 중국 부동산 경기는 1분기에 억눌렸던 수요로 반짝 반등했지만, 2분기부터 부진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6월의 주택 판매면적과 판매액은 작년의 높은 기저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7.2%, 25.1% 급락했다. 이에 상반기 판매면적과 판매액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1.1%, 1.8% 하락했다. 이는 올해 연간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연초 예상을 빗나갔다. 다만 '21년恒大 신용 사태 이후 국영기업으로의 판매가 집중될 것이란 방향은 일치했다(그림 2)

그림1 중국 신규주택 월별 거래지표: 6월에 두 자릿수 하락



주: '21년은 20-21년 2년 연평균 증가율 기준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중국 부동산 거래 중 국영기업 거래 비중 상승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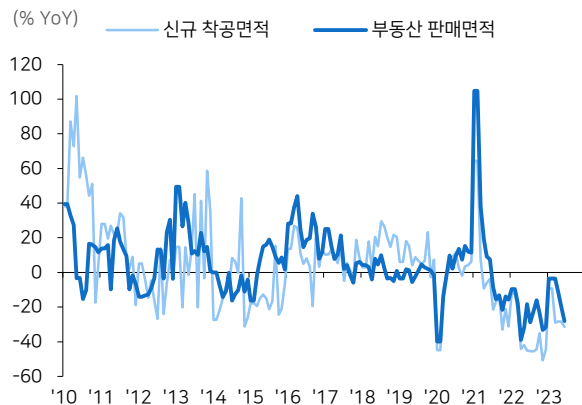
자료: CIR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거래량 부진은 투자 및 유동성 위험 상승으로 연결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하며 부동산 투자의 선행지표였던 신규 착공면적도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고, 이는 부동산 투자 부진으로 이어졌다. 상반기 중국의 부동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7.9% 감소하며 '20년 코로나19가 폭발했던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 또한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부진으로 연결되며 GDP 성장에 마이너스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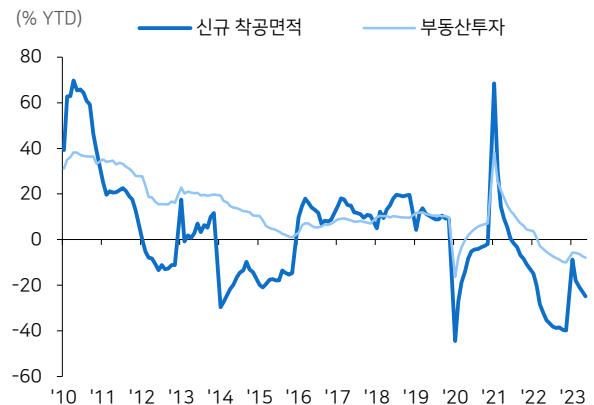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자금조달도 다시 악화되었다. 1분기의 주택 거래 증가로 디벨로퍼들의 주요 자금조달 채널이었던 가계 계약금과 모기지가 2분기부터 거래 둔화에 동반하며 전년동기대비 역성장 구간에 진입했다(그림 5). 또한 회복이 부진하며 일부 기업들의 유동성 리스크도 재가 부각되면서 디벨로퍼 달러채의 하이일드 스프레드가 상승했다(그림 6). 결과적으로 리오프닝 이후 반짝 개선되었던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은 2분기부터 다시 악순환의 고리에 진입했다.

그림3 부동산 거래 부진→ 투자 선행지표인 신규착공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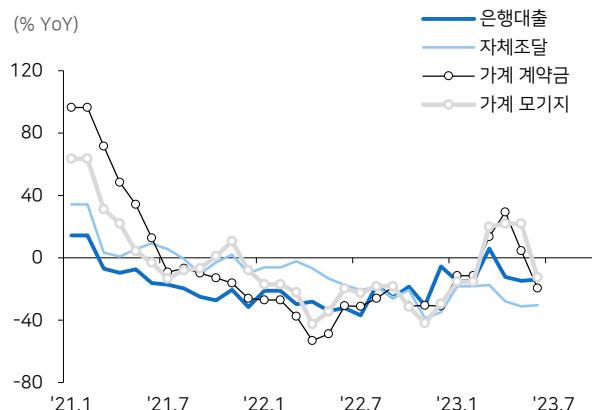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신규 착공면적 급감 → 부동산투자 하락으로 연결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중국 디벨로퍼의 자금조달: 5월부터 가계 부문도 악화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디벨로퍼들의 신용 리스크 다시 상승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하반기 전망: 부진 흐름 지속, 정책지원은 하방 압력 완화에 방점

하반기 부진 흐름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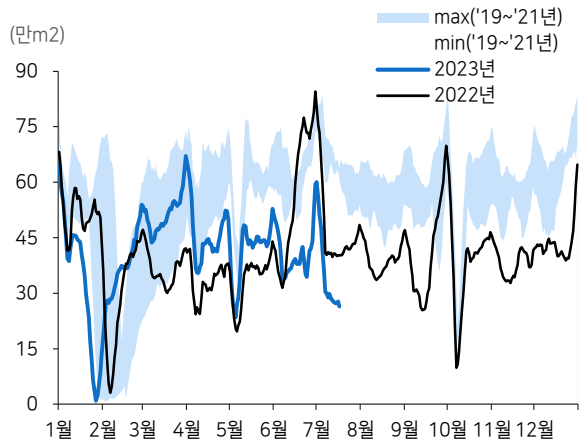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하반기 중국 부동산 수요가 아직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30개 주요 도시의 일간 부동산 거래면적은 7월에도 부진하다(7월 17일 기준 7월 월간 부동산 거래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1% 감소, 그림 7).

이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수요 개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1) 금리 인하와 2) 대도시의 구매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금리 인하의 견인효과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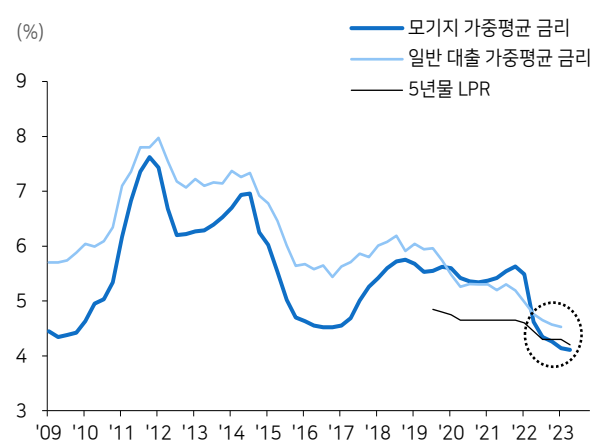
금리 인하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었다. 올해 상반기 상업은행의 모기지 가중평균 금리는 4.1%로 사상 최저치이며, 기준금리 격인 5년물 최우대 대출금리(LPR) 4.2%보다 낮다.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달리 금리 인하에도 주택 거래량 개선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국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거나 구매력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금대로라면 하반기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7 30개 도시의 일간 부동산 거래면적: 6월부터 역성장



주: 7일 이동평균 기준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중국 상업은행 모기지 금리: 사상 최저치까지 하락



자료: 중국 인민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책당국 기조 상

1선도시 대규모 규제완화 가능성 낮아

그러다 보니 대도시의 구매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의 주택 구매제한은 여전히 강력한 반면 충칭, 둥관, 난통, 하얼빈 등 2선도시를 포함한 지역은 이미 구매제한을 풀었다. 시장 참여자들은 1선 도시의 구매제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기 부양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배경에서 1선 도시마저 전면 완화하게 되면 중장기 중국 부동산의 잠재 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정책 기조도 연초부터 시중일관하게 ▲수요 측면에서는 개선형 수요 부양,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교부'와 '시스템 리스크 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7월 10일 부동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1년 추가 연장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이다.

연간 부동산 투자 전망:
기준 0% → -5%로 하향 조정

따라서 하반기 수요 안정화를 위해 오는 7월 말 정치국회의 이후 일부 2선 도시에서 구매 제한을 추가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겠으나, 1선 도시의 전면 완화 가능성이 낮아 부양 효과는 하방을 막아주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하반기 지원정책에도 거래가 뚜렷하게 늘지 않으면서 신규착공, 토지매입을 비롯한 부동산 투자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신 주택 완공 부문이 정책 지원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10%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투자 부진을 일부 방어할 것이다(그림 9). 이에 올해 부동산 투자가 0%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연초 전망을 -5% 전후로 하향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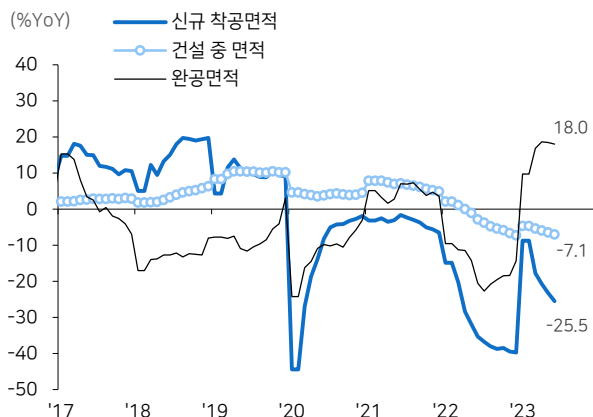
표1 중국의 32개 주요 도시별 주택 구매제한 정책 정리

도시	타지인: 세금 납부 개월수(월)	구매 한도(채)			제한 범위	도시	타지인: 세금 납부 개월수(월)	구매 한도(채)			제한 범위
		일반	1인 가구	특수 가구 (다자녀/노인)				일반	1인 가구	특수 가구 (다자녀/노인)	
베이징	60	2	1	2	도시 전체	등관	0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상하이	60	2	1	2	도시 전체	우시	6	2	2	3	핵심 구역
선전	60	2	1	2	도시 전체	푸저우	0	2	2	3	핵심 구역
톈진	6	2	2	3	핵심 구역	난통	12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핵심 구역
충칭	0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선양	0	2	2	3	핵심 구역
광저우	60	2	1	2	도시 전체	칭다오	0	2	2	3	핵심 구역
항저우	12	2	1	3	핵심 구역	지난	0	2	2	3	핵심 구역
난징	6	2	1	3	핵심 구역	허페이	12	2	2	3	핵심 구역
우한	6	3	3	3	핵심 구역	정저우	24	2	1	3	핵심 구역
청두	12	2	1	3	핵심 구역	스자좡	12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핵심 구역
쑤저우	6	3	3	3	도시 전체	하얼빈	0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다롄	0	2	2	2	핵심 구역	쿤밍	12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핵심 구역
샤먼	36	2	1	3	도시 전체	원저우	6	2	2	2	도시 전체
시안	6	2	2	3	핵심 구역	포산	0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창사	24	2	1	3	핵심 구역	주하이	12	3	3	3	핵심 구역
닝보	24	2	2	3	핵심 구역	취안저우	12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핵심 구역

주: 7월 5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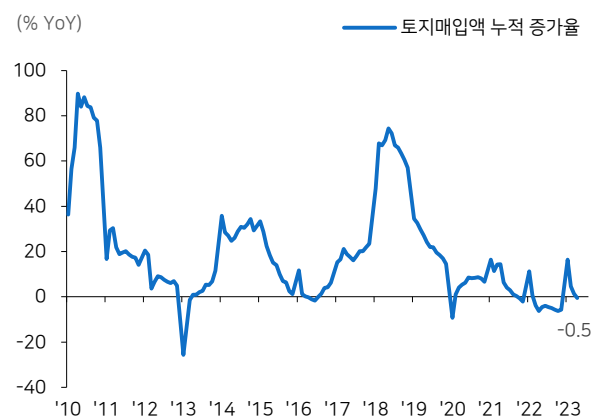
자료: 각 지방정부 사이트, CIC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중국 부동산 투자: 신규착공 하락 vs. 완공면적 증가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부동산 디벨로퍼의 토지매입액도 전년대비 감소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리스크 점검: 일부 디벨로퍼의 유동성 리스크 모니터링 필요

적은 공급에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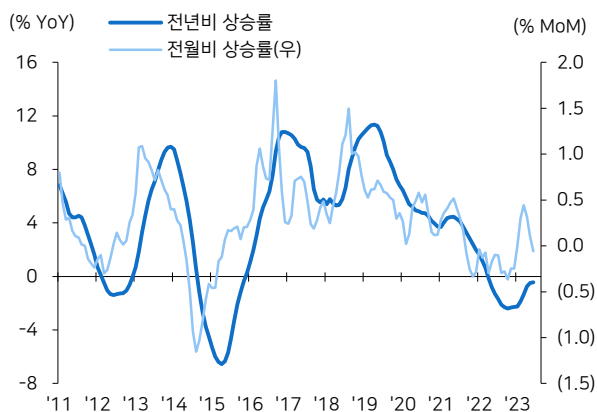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 제한적: 하반기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일각에서는 주택 가격이 다시 급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반 신규주택 가격 급락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이는 과거와 달리 현재 중국 부동산 경기는 수요가 부진하기도 하지만 디벨로퍼들의 투자가 많이 감소하면서 공급도 동반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70개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도 전년동월대비 낙폭을 축소하고 있고, 급지별 신규주택 가격도 2분기부터 다시 둔화되었지만 아직 하락폭이 크지 않다(그림 11, 12).

하반기 거래량 저조에
일부 디벨로퍼 부도 위험 상승

일부 디벨로퍼 부도 위험 모니터링 필요: 오히려 하반기에는 일부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부도 위험은 모니터링 할 필요가 높아졌다. 거래 부진에 디벨로퍼들의 자금 회수가 늦어지는 것 대비 하반기에도 채권의 만기도래 규모가 상반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림 13, 14). 최근 헝다그룹이 '21년 하반기와 '22년 연간 재무제표를 공개하면서 2.4조 위안에 달하는 부채와 8,100억 위안의 2년간 누적 순손실을 발표하며 자본잠식을 보여줬다. 현재 완다그룹도 하반기 만기도래 부채 상황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R&F 디벨로퍼도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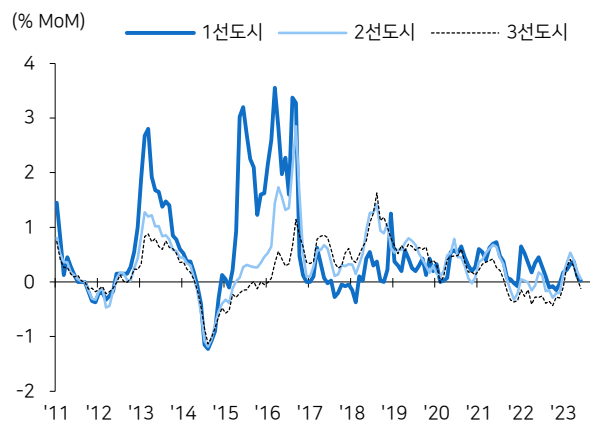
물론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대규모 부도가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시스템 리스크를 안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다. 단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민영 기업 중심의 부도 위험은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11 70개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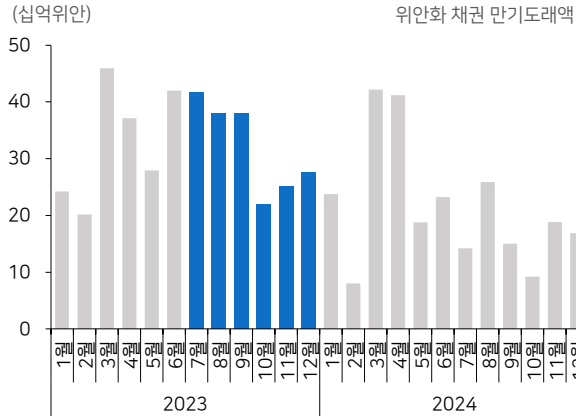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70개 도시의 급지별 신규주택 가격 전월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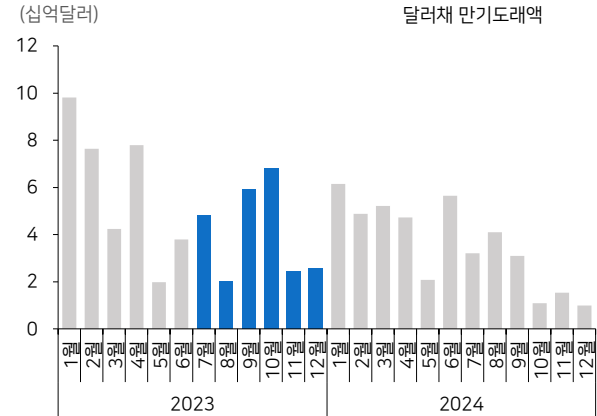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중국 디벨로퍼들의 위안화 채권 만기도래액 추이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중국 디벨로퍼들의 달러채 만기도래액 추이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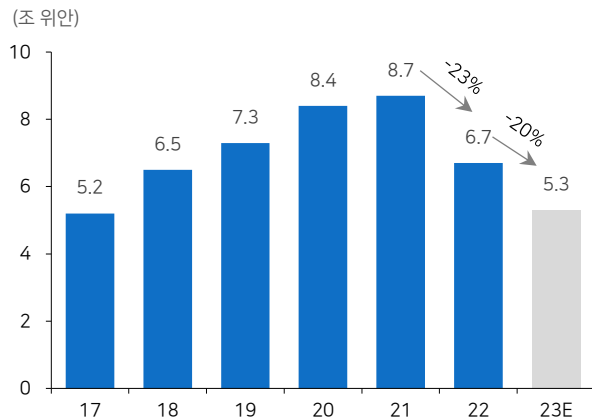
부동산 경기 부진 = 중국 주식시장 반등의 걸림돌

부동산 경기가 변곡점 맞이할
때까지 중국증시 상대적 부진 지속

중국 부동산 시장 부진이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은 자명하다. 투자 부진은 물론 관련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과급력이 컸다. 올해에는 2년간의 부동산 토지양도 시장의 부진이 지방정부의 확장정 재정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지난 2년간 디벨로퍼들의 부동산 투자가 부진하면서 지방정부의 주요 세수원이었던 토지양도 수입이 매년 20%씩 감소했다. 위낙에도 부채비율이 높은데다가 이제는 수입마저 빠르게 줄어들면서 추가 레버리지 확장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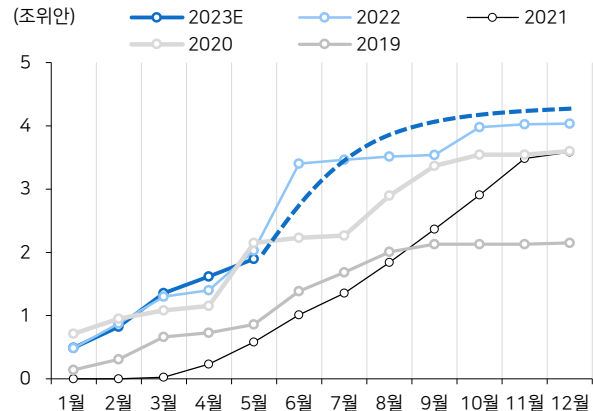
이에 하반기 경기부양에서 중앙정부가 특별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추가 재정책확장 가능성은 낮아졌고, 오히려 남은 3분기에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을 가속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경기부양 조치와는 거리가 있어 주식시장 반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변곡점을 맞이하기까지 중국 주식시장의 박스권 흐름, 글로벌 기타 시장 대비 상대적 부진한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15 지방정부의 주요 세수원인 토지양도수입 2년째 감소



자료: 중국 재정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중국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진도: 3분기 가속화



자료: 중국 재정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칼럼의 재해석

강하라 연구원

틱톡, 동남아시아 이어 미국에서도 이커머스 사업 확대(Bloomberg)

틱톡이 동남아시아에 이어 미국에서도 온라인 쇼핑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아마존이나 쉬인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틱톡의 점유율 확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시 틱톡의 커머스 성장은 아직 보수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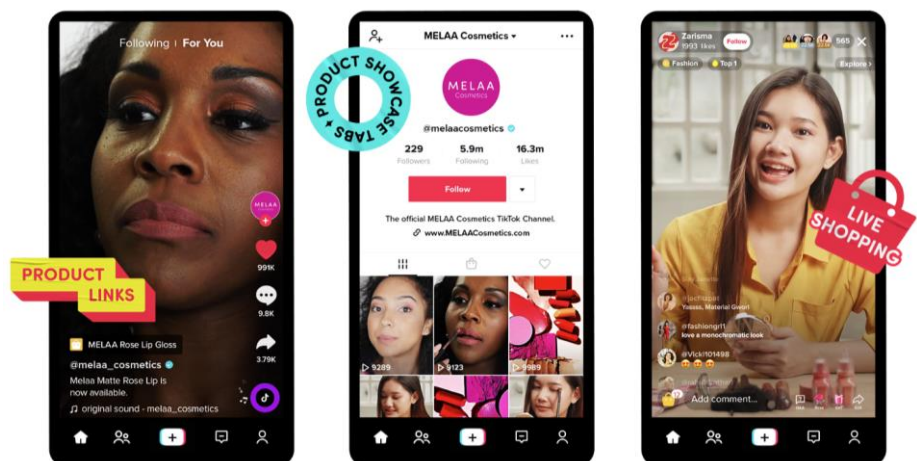
2022년 11월, 틱톡은 미국 앱에 쇼핑 기능을 추가했다. 현재는 크리에이터 프로필에 연결된 미니 스토어 형태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마켓 플레이스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마켓플레이스는 일반 온라인 쇼핑 앱과 유사하게 모든 상품을 검색, 비교, 구매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다.

틱톡,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점유율 빠르게 확대 중

틱톡이 동남아시아에 이어 미국에서도 온라인 쇼핑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아마존이나 쉬인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틱톡의 점유율 확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시 틱톡의 커머스 성장은 아직 보수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광고 경기 침체와 미국 내 규제로 대안을 찾던 틱톡은 2021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Tiktok Shop을 오픈했으며 이후 2022년 4월 동남아시아 5개국(싱가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으로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커머스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틱톡 쇼핑을 통해 브랜드들은 라이브 스트리머와 함께 제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구매를 원할 시 바로 결제로 연결되는 쇼핑 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림1 TikTok 라이브쇼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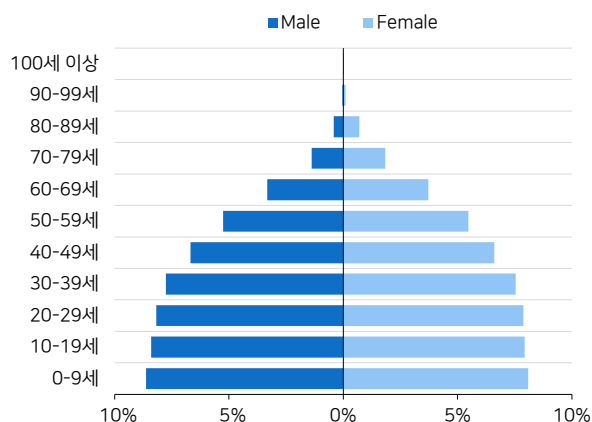


자료: Tiktok

10-30대가 인구 비중 절반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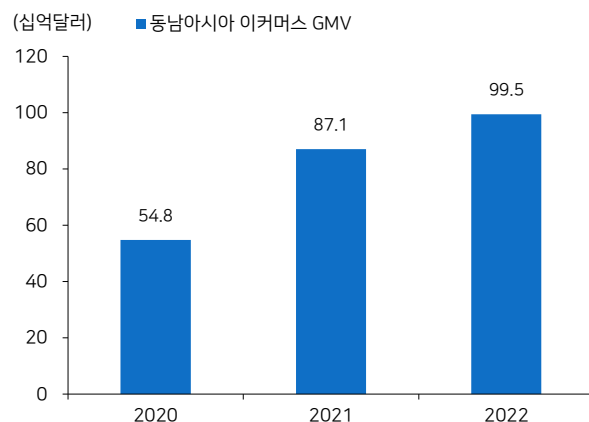
동남아시아는 10-30대가 인구 중 48%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온라인 쇼핑 사용률이 높다. 2022년 동남아시아의 이커머스 GMV(Gross Merchandise Value)는 약 천억 달러로 이는 2020년 대비 2배 성장한 수치이다.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의 빠른 성장에는 기존 사업체인 Shopee나 Lazada 등이 배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집행한 투자 또한 큰 기여를 했는데, 덕분에 후발주자인 틱톡은 이미 구축된 시스템의 수혜를 그대로 누리며 커머스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림2 10-30대가 인구 중 48%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자료: PopulationPyrami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2022년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GMV 천억 달러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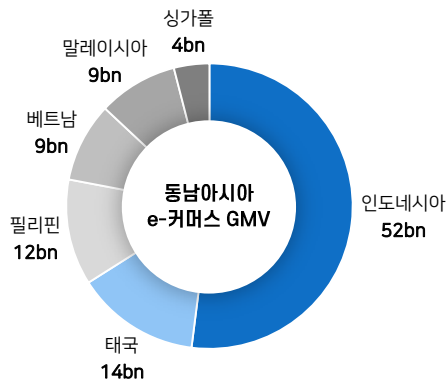
자료: Momentum Work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젊은 연령대와 높은 틱톡 사용률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틱톡 커머스

동남아시아는 틱톡 사용률 또한 높은 지역으로 그 중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인도네시아의 틱톡 월간 사용자수는 약 1억명이다. 이는 1.5억명인 미국 다음으로 전세계 2위 국가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전체 사용자 수는 약 1억 3,500만명에 이른다. 틱톡은 젊은 연령층과 높은 틱톡 사용률을 기반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빠르게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동남아시아의 이커머스 GMV(Gross Merchandise Value)는 약 천억 달러인데 그 중 틱톡은 약 44억 달러를 차지했으며 이는 이커머스 업체 5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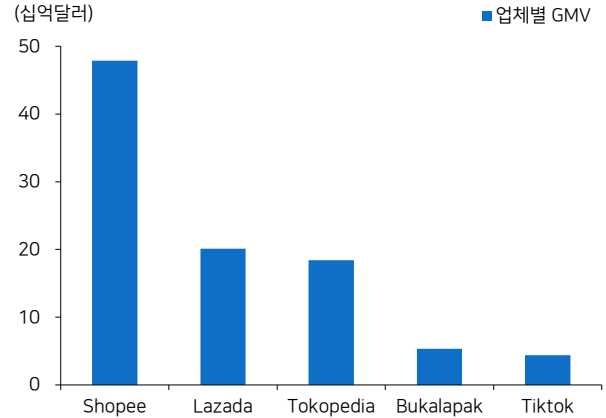
특히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라마단을 지내는데, 해당 기간 동안 일출에서 일몰까지 금식하며 근무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집 안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덕분에 영상 콘텐츠와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틱톡은 라마단 기간 트래픽과 쇼핑 거래액이 크게 증가한다. 틱톡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67%의 유저들이 라마단 중 평소보다 틱톡 쇼핑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그림4 동남아시아 국가별 이커머스 시장 규모



자료: Momentum Work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2022년 동남아 이커머스 GMV 5위 차지한 틱톡



자료: Momentum Work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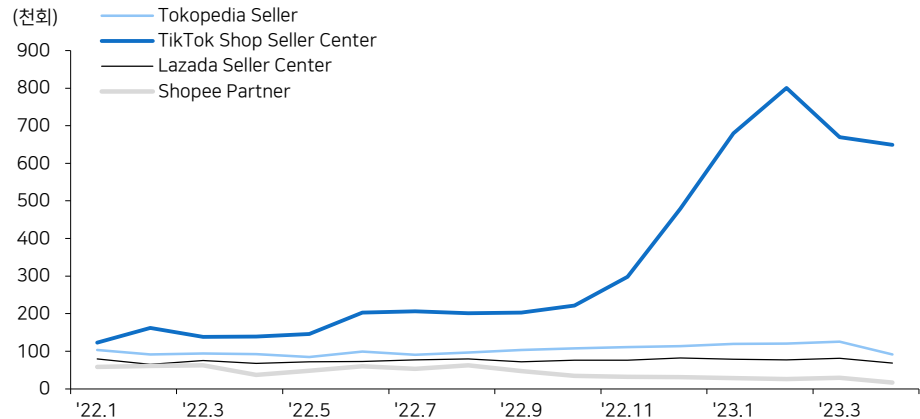
빠른 성장의 배경은 낮은 수수료와 할인 정책

낮은 수수료로 빠르게 스트리머
영입할 수 있었던 틱톡

틱톡이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던 배경은 판매자 우호적인 정책 영향 또한 있다. 틱톡은 쇼핑 기능 도입 초기 로컬 에이전시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머를 영입했는데 판매 수수료 1%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틱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많은 스트리머가 유입되었다. 반면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1위 업체인 Shopee는 5%의 판매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낮은 수수료 정책으로 틱톡 Shop 판매자용 앱은 경쟁업체 Shopee나 Lazada에 비해 월등히 높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틱톡은 또한 소비자들에게 많은 쿠폰을 제공하면서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낮은 수수료와 할인 정책이 빠른 시장 점유율 확보에 동력이 될 수 있으나 계속해서 자본을 써가면서 확장해나가는 방식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6 낮은 수수료 정책으로 셀러 앱 다운로드 빠르게 증가한 틱톡



자료: Apptopi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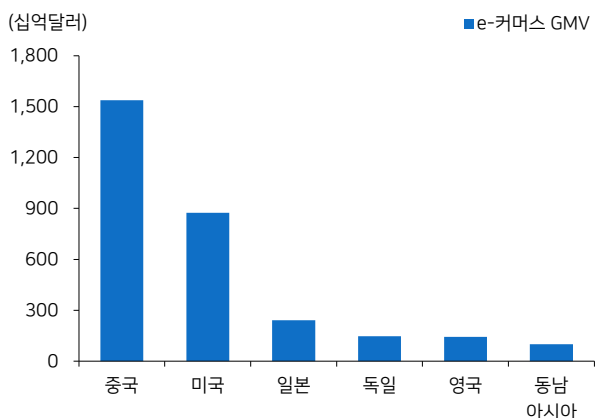
미국에서 마켓플레이스 오픈 예정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과 미국 내 규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틱톡에게 미국은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동남아시아의 인당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속하며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동남아시아 6개국 합산 전체 시장보다 8배 이상 크다.

마켓플레이스 오픈 위해 미국 내 물류 시스템 업체와 파트너십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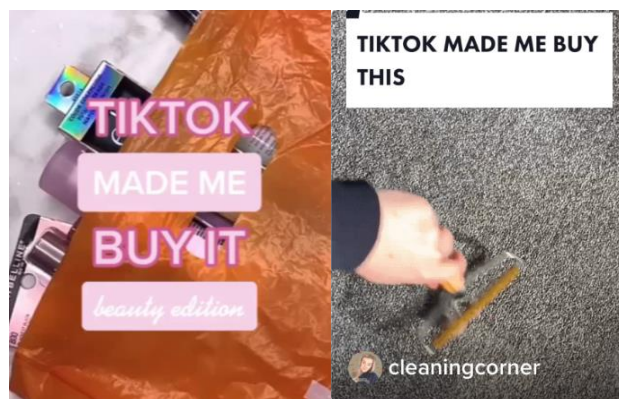
2022년 11월, 틱톡은 미국 앱에도 쇼핑 기능을 추가했다. 현재는 크리에이터 프로필에 연결된 미니 스토어 형태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마켓 플레이스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마켓플레이스는 일반 온라인 쇼핑 앱과 유사하게 모든 상품을 검색, 비교, 구매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며 틱톡은 이를 위해 미국 내 물류 시스템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중국 제조업체, 수출업체와 컨택해 수수료 없이 미국 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게 제안 중이다.

그림7 미국 이커머스 GMV, 동남아의 8배 이상



자료: Oberlo,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Tiktokmademebuyit



자료: Tiktok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틱톡 유해성에 대한 우려 등장

틱톡은 콘텐츠 시청 알고리즘에 기반해 유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영상을 추천해 더 많은 시간을 자사 플랫폼 내에서 보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쇼핑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청 히스토리를 참고해 구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많이 시청하는 유저에게는 화장품 라이브 커머스 영상이 자주 뜨도록 설정하고, IT기기 설명 영상을 많이 시청하는 유저에게는 전자기기 신제품 커머스가 상단에 보이도록 배치에 클릭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Tiktokmademebuyit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할 정도로 충동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는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틱톡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베트남 정부는 틱톡이 "베트남 젊은 층과 문화, 전통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틱톡은 글로벌 쇼핑 GMV를 2022년 44억 달러에서 2023년 200억 달러까지 성장을 목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아마존이나 쉬인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낮은 수수료와 할인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 내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시 틱톡의 커머스 성장은 아직 보수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원문: *TikTok Emerges as Threat to Amazon With \$20 Billion Shopping Pilot (Bloomberg)*